

“5·18 재심 다들 무죄 받는데...”

박관현 열사 재심청구 기각에 가족들 분통 법원 “확정판결전 사망, 대상 안돼”... 법 보완 필요

“5·18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는데 재심 기각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2심 도중 옥사한 고 박관현(1952~1982·사진) 열사의 재심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돼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최근 박관현 열사의 누나인 박형순(63)씨가 아버지(88) 이름으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박 열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

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심근경색으로 숨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공소 기각으로 원심 효력이 상실하면서 재심 청구의 대상도 사라져 버린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 기각판결에 한정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해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유족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18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는 상황에서 재판 중 숨진 당사자의 유족의 재심 기회를 박탈당할 수 밖에 없어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년 전 남동생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박씨는 “최근 5·18 관련자들이 재심에서 풀려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며 “남동생은 민주화와 자주·민족통일 위해 애쓴 죄밖에 없는데, 내란죄를 적용해 복역 중 옥사했으니 무죄 판결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심청구가 기각됐으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기각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법조계나 5·18단체들은 유죄도 무죄도 아닌 모호한 상황에서 형사적 명예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부직이나 특별조항을 뒤 재판 중 사망자의 재심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박관현 열사=19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1980년 4월11일~5월16일 전남대 등지에서 시위 등 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내란 중요 임무 중상·계엄위 위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2년 10월12일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졌으며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한 달 뒤 공소기각 했다.



아코디언 연주에 어깨춤 절로... 지난 12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층 로비에서 열린 ‘장기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어깨춤을 추고 있다. /나경우기자 mjna@kwangju.co.kr

짐승같은 삼촌 조카 3명 10년간 성폭행

여자 조카 3명을 초등학생 때부터 10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파렴치한 친삼촌이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10여년 동안 친조카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

지 10여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보성군 한 마을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형의 딸 3명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20대~10대 사이의 여조카 3명이 초등학교 3~4학년 나이가 될 때마다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용돈을 주면서 피드린 후 이 같은 범행

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카들은 이런 피해 사실을 어머니와 고모 등에게 알렸지만, 가족들은 집안 분란을 걱정할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집, 할머니 집, 계곡, 차 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

고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 조카에게는 지난 2011년 4월까지 이 같은 짓을 저질러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월, 둘째 조카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조카는 경찰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으며,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막내가 격정돼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거절해도 3회 이상 교제 요구하면 ‘스토킹’

경범죄 범칙금 8만원

이성이 거절했는데도 3회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교제하자고 제안하다가 ‘스토킹’으로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공식 블로그인 ‘폴리러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톱킹 처벌규정을 14일 공개했다.

경찰은 이성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스톱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1~2회 정도 이성에게 단순히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

위는 스톱킹이 아니다.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 등으로 앞서 스톱킹 신고를 당했는데도 이런 행위를 지속하면 스톱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도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처벌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스톱킹에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스톱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연필뉴스



만취 군의원 장성서 교통 사고

다문화 임신부 등 3명 부상

한지 군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냈다.

14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40분께 장성군 삼계면 금강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장성군의회 소속 이모(54) 의원이 몰던 쏘나타 승용차와 김모(31)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김씨와 아내 왕모(30)씨, 딸(5)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임신부

인 왕씨와 태아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문화가정인 김씨 부부는 이날 의식을 나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의원은 이날 만취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셨으며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현장조사만 한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15일 이 의원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법원 ‘피의자와 성관계 욕망 충족도 뇌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전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살피면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향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외국 의 관례를 고려해도 유사한 사안에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필뉴스

흑염소 불법 유통 셋 입건

광주남부경찰은 14일 질병으로 폐사한 흑염소를 불법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정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질병 등으로 폐사한 흑염소 6마리를 축사 내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해 이모(59)씨의 건강원에 마리당 18만원을 받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60)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의 농장에서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하며 매달 흑염소 20마리를 도축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보양식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

“도우미 왜 안 불러줘” 여주인 추행

○만취한 채 찾아가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다는 50대 여주인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 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한모(31)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에 있는 김모(52)씨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인 김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한씨는 “일행과 헤어진 뒤 혼자 노래방을 찾아가는데, 외로운 나머지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했다”며 뒤늦은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핀 X

M.H.타사 신제품 기적공인가

브랜드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